

우리나라 노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 시설노인과 일반노인의 비교

정 명 숙*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복지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들과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1) 자신의 삶에 대해 각각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2) 삶의 여러 영역들에 대한 만족감과 삶 전반에 대해 느끼는 만족감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이들이 앞으로 더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영역에서의 생활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규명해내며, 또 3) 성격요인 중 외향적 성향과 낙관주의적 태도가 삶에 대한 만족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가정노인이 시설노인보다 삶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지 않았다. 둘째, 시설노인은 생산영역 만족도가 전반적 만족도를 주로 결정하였으나, 일반가정노인은 물질, 정서, 신체영역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더 컸고 생산영역 만족도는 영향력이 미미하였다. 끝으로, 노인집단에 관계없이 성격이 낙관적인 노인일수록, 또 외향적인 성향이 강한 노인일수록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삶의 질, 삶에 대한 만족도, 행복, 전반적 만족도, 영역만족도, 노인

우리나라는 사회 전반적인 생활조건 개선 및 의료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노령인구의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2000년도에 이미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웃돌면서 고령화 사회로 진

입하였다. 노인인구의 비율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낮은 출산율이라는 사회현상과 겹치면서 향후 더욱 급속히 늘어날 전망으로, 2020년 경에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통계청,

* 이 연구는 2006년도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습니다.

* 교신저자: 정명숙, E-mail: mchung@kkot.ac.kr

2001).

노년기에는 기력 쇠퇴 및 건강악화, 경제수준 저하, 그리고 소외감, 고독감, 자아존중감 저하 등의 각종 심리사회적 손실을 겪게 되기 때문에 (Kolberg, 1999; Baltes & Mayer, 1999), 우리 사회의 고령화 가속현상은 앞으로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을 예측하게 해준다. 노인문제를 해결하고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면서 성공적인 노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평가하고 이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혀내는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노인대상 연구들은 노화로 인한 인지적·생리적 손실과 질병관련 현상들에 초점을 맞추어왔다(Rowe & Kahn, 1987). 그러나 최근 들어 성공적 노화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이 분야의 연구는 행복이나 만족과 관련된 주제를 대거 다루게 되었다(Abeles, Gift, & Ory, 1994; Baltes & Baltes, 1990; Garfein & Herzog, 1995).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느끼고 있는 행복의 정도나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대단히 중요하다. 사회 구성원들이 누리는 삶의 질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지표를 마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를 통해 사회구성원들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일반노인들과 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또 이들이 느끼는 만족감과 행복감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세 가지이다. 첫째, 우리나라 노인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현재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일반노인과 시설거주노인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비교해봄으로써 객관적 조건이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노인들의 삶에 대한 만족을 다룬 선행연구 중에 시설노인과 일반노인의 만족도를 비교한 경우는 흔치 않다. 대부분이 지역사회 거주 일반노인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들보다 객관적 삶의 여건이 나쁘다고 할 수 있는 독거노인, 장애노인, 재가복지수혜노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더구나 이 연구들 중 상당수는 연구목적에 따라 연령, 성별, 교육수준 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이나 자아존중감, 내외통제성 같은 개인적 특성 변인들과 삶에 대한 만족도 간의 상관만을 구하거나(박은숙 등, 1998; 손화희, 정옥분, 1999; 장현, 이철우, 1996; 정태연, 2001) 여러 척도들 간의 상관만을 보고했을 뿐이고(유희정, 1987) 만족도 점수는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시설노인과 일반노인의 만족도를 연구들 간에 간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조차도 용이하지 않다. 시설노인과 일반노인의 만족도를 직접 비교한 연구로는 성기월(1999)이 유일한데, 이 연구는 객관적 조건에 근거한 상식적 예측과는 달리 시설노인이 일반노인보다 자신의 삶에 오히려 더 만족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노인들이 삶의 여러 영역에서 느끼는 만족감과 삶 전반에 대해 느끼는 만족감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밝히고, 이를 통해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영역의 생활조건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선행연

구들이 주로 삶 전반에 대한 만족도만을 연구한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 만족도뿐 아니라 노인들이 삶의 여러 영역에서 느끼는 만족도도 측정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성격요인이 노인들의 삶에 대한 만족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고자 하였다. 많은 연구들이 삶에 대한 만족이 외향성, 낙관주의, 자아존중감, 개인적 통제감 등 개인의 여러 성격특성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손화희, 정옥분, 1999; Diener & Diener, 1995; Diener & Lucas, 1999; Leung, Moneta, & McBride-Chang, 2005; Lounsbury, Saudargas, Gibson, & Leong, 2005; Scheier & Carver, 1992). 본 연구에서는 시설거주노인과 일반노인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가 특히 외향성과 낙관주의라는 두 성격특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삶에 대한 만족: 정의와 측정

삶에 대한 만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념 정의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삶에 대한 만족은 흔히 삶의 질 또는 행복이라는 용어와 병용되는데, Diener(1984)는 삶의 질 또는 행복에 대한 정의를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첫째 유형은 삶의 질을 미덕이나 신성함과 같은 외적 기준이나 조건에 의해 정의한다. 이 정의에 의하면, 행복이란 주관적인 심리상태가 아니라 바람직한 어떤 속성을 소유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행복의 기준이 행위자의 주관적 판단에 있지 않고 관찰자의 가치관에 있다. 삶의 질에 대한 두 번째 정의는 한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내리는 인지적 평가를 중요시한다. 보통 삶에 대한 만족도 또는 생활만족도(life satisfaction)

라 불리는 이 정의에 따르면,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설정한 기준에 의해 자신의 삶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지를 결정한다. 세 번째 정의는 정서적 측면을 강조한다. 이 정의는 일상 생활에서 말하는 행복의 의미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서, 행복이란 부정적인 감정에 비해 긍정적인 감정이 훨씬 더 우세한 심리상태를 의미한다(Bradburn, 1969; Diener & Emmons, 1984).

Stock, Okun과 Benin(1986)은 삶의 질을 행복감(happiness), 사기(morale), 만족감(satisfaction)의 세 가지 지표에 의해 조작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Stock 등에 따르면, 행복감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의 비율을 의미하고, 사기는 자신의 삶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낙관의 정도로 정의되며, 만족감은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 평가 및 만족 정도를 가리킨다. Veenhoven(1984)은 삶의 질을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정도에 의해 정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Andrews와 Withey(1976)는 인지적 평가 및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감정의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고 보았다.

삶의 질 또는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정의는 이렇듯 다양하다. 그러나 삶의 질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주로 삶에 대한 만족과 긍정적 및 부정적 정서에 의한 정의를 선호하고 있으며(Lucas, Diener, & Suh, 1996), 삶의 질에 대한 평가는 삶의 모든 측면을 망라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삶의 특정한 영역에 대한 감정이나 만족을 평가할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감을 평가할 때에는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측면을 평가하는 척도와 정서적 측면을 평가하는 척도를 함께 사용

하였다. 전자로는 Diener, Emmons, Larsen과 Griffin(1985)이 개발한 생활만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이하 SWLS로 표기)를 사용하였고, 후자로는 이홍철(1993)의 기분평정척도를 사용하였다. SWLS는 흔히 많이 쓰이는 척도이므로 이 척도를 사용하면 다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이 노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특별히 노인용으로 제작된 척도인 노인 생활만족도 척도(Memorial University of Newfoundland Scale of Happiness, 이하 MUNSH로 표기)를 추가로 사용했는데, 이는 인지와 정서의 두 측면을 모두 평가하는 척도이다.

이론적 접근

삶에 대한 만족 또는 행복에 대한 설명으로는 크게 상향이론(bottom-up theory)과 하향이론(top-down theory)의 두 갈래가 있다(Diener, 1984).

상향이론은 행복이 즐거운 순간과 경험, 그리고 괴로운 순간과 경험을 모두 합침으로써 도출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Maddi, Bartone, & Puccetti, 1987; Okun, Olding, & Cohn, 1990; Wood, Rhodes, & Whelan, 1989). 행복한 삶이란 행복감이 누적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순간을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삶에 대한 만족감은 결혼, 가정, 직장 등 삶의 여러 하위 영역에서 느끼는 만족감을 합친 것이 된다(Campbell, Converse, & Rodgers, 1976).

그러나 하향이론에 의하면(Schroeder & Costa, 1984),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

으로 반응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전반적 성격요인이 사람마다 어느 정도 행복감을 느끼는지를 좌우한다고 본다. 이 관점에서 보면 행복한 사람은 삶의 기쁨을 기쁨으로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지, 객관적 의미에서 행복할 수 있는 요소들을 실제로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은 아니다(Costa, McCrae, & Norris, 1981). 경험 자체가 객관적으로 좋다거나 나쁘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좋거나 나쁜 것으로 지각된다는 것이다.

이 두 관점 각각을 지지하는 증거가 있다. 예를 들어, Andrews와 Withey(1974)는 삶의 여러 영역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예언하는 데 중요하지 않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Costa와 McCrae(1980), 그리고 Lounsbury 등(2005)은 외향성이나 정서적 안정성 같은 성격특성이 삶에 대한 만족도를 신뢰할 만하게 설명해 준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어 모두 하향이론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에, Headey와 Wearing(1989)은 성격요인보다는 구체적인 생활사건의 합이 삶에 대한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해 상향이론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이 두 관점을 포괄하는 연구들이 많이 발표되었다(Brief, Butcher, George, & Link, 1993; Feist, Bodner, Jacobs, Miles, & Tan, 1995; Felce & Perry, 1997; Johnson & Krueger, 2006). Brief 등(1993)은 객관적 삶의 조건과 성격변인(이 연구에서는 건강상태와 부적 정서성으로 각각 측정)이 모두 삶의 조건에 대한 해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주관적 행복감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Brief 등은 상향이론과 하향이론을 통합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즉, 성격요인과 객관적 삶의 조건은 주관적 행복감에 각각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객관적 삶의 조건은 이 조건에 대한 인지적 해석이라는 매개과정을 거쳐 주관적 행복감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모델은 인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에는 객관적 환경요인과 성격요인 중 어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두 요인이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똑같은 환경조건에서도 성격특성에 따라(성격특성이 환경에 대한 해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한 개인이 느끼는 만족감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Feist 등(1995)도 상향요인과 하향요인이 상호 작용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신체건강, 일상생활의 골칫거리, 세계관, 건설적 사고의 네 가지 요인이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며, 또 거꾸로 주관적 행복감이 이들 요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들은 이 연구의 결과로부터 상향이론과 하향이론을 통합하는 양방향적인 인과성 모델(bidirectional model of causality)을 내놓았다. 즉, 원인-결과 연쇄에서 어느 지점을 시발점으로 삼느냐에 따라 주관적 행복감은 예컨대 건강의 선행조건이 될 수도 있고 거꾸로 그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모델에 의하면, 삶에 대한 만족과 행복이 다양한 삶의 영역에 대한 만족도의 합에서 비롯된다는 주장은 부분적으로만 옳을 뿐이다. 삶에 대한 만족이 일반적인 성향으로 작용해서 삶의 각 영역에 대한 지각을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 더 많은 행복감을 느끼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많이 나오고 있다(Costa & McCrae, 1984; Diener & Larsen, 1984; Hotard, McFatter, McWhirter, & Stegall,

1989).

Felce와 Perry(1997)도 한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느끼는 만족감에는 소득수준과 같은 객관적 조건뿐 아니라 그 조건에 대한 주관적 평가도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Felce와 Perry에 따르면,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평가의 상대적 중요성은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령 사교적인 사람은 대인관계의 폭에 더 큰 중요성을 부여하겠지만 물질적인 사람은 수입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할 것이다.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객관적 상황, 주관적 평가, 가치관의 세 차원은 상호의존적으로서 한 차원의 변화는 다른 차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재산의 증가와 이로 인한 생활양식의 변화에 만족하는 경험을 한 사람은 소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바뀌질 수 있으며, 그 결과 물질에 대한 가치관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Johnson과 Krueger(2006)는 소득수준 같은 객관적 환경 변인은 그 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한 주관적 지각을 통해 삶에 대한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며, 또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감이 실제 소득수준과 만족감의 관계에 매개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삶에 대한 만족감은 어느 한 가지 요인만 가지고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삶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만족감(상향요인)의 누적과 여러 성격요인(하향요인)이 모두 삶에 대한 만족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두 요인이 일반노인과 시설노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느끼는 전반적인 만족감에 각각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감이 삶의 다양한 영역

에 대한 만족도의 총합으로 이루어지는 다차원적인 개념이라고 보는 하향이론의 입장에 동의하는 연구자들도(Campbell, 1981), 어떤 요소들이 삶의 질을 구성하느냐에 있어서는 조금씩 견해를 달리 한다. Felce와 Perry(1997)는 일반인, 정신장애인, 지체장애인, 정신건강에 관한 15개의 논문을 개관한 결과 연구자에 따라 생활영역의 구분방식에 약간씩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상당부분 중복되는 것을 발견하고 이들을 종합하여 삶의 영역을 신체영역, 물질영역, 사회영역, 정서영역, 생산영역의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신체영역은 신체의 건강, 안전과 관련되어 있고, 물질영역은 주거환경의 질과 관련되어 있다. 사회영역은 가족, 친척, 친구, 동료와의 대인관계,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및 지원과 관계되어 있다. 정서영역은 성취,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지위와 존경 등과 관련이 있으며, 생산영역은 선택권, 자기통제감, 독립성, 자기성장, 시간을 건설적으로 사용하는 능력 등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Felce와 Perry(1997)의 구분에 따라 삶의 영역에 따른 만족도를 이 5개 영역에서 측정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 124명과 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 115명으로 총 239명이었다. 일반노인은 충청도의 C시와 D시에 소재한 노인복지관 세 곳에서 여러 취미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노인들이었다. 시설노인은 충청지역의 사회복지시설 두 곳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 입소자들 중에서 정신장애가 없고 기능이 상대적으로 정상적인 노인들을 선정하였다. 시설노인과 일반노인의 평균연령은 각각 70.28세와 68.25세이었다.

연구에 참여한 시설노인과 일반노인의 연령별, 성별, 교육수준별 분포를 표 1에 제시하였다. 각 조건별로 연령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연령범위도 함께 제시하였다. 시설노인과 일반노인 모두 60대가 50%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80대로 갈수록 그 비율이 줄어들었다, $\chi^2(2) = 1.249, p > .10$. 남녀의 비율은 일반노인의 경우에는 비슷하였으나, 시설거주 노인의 경우 남자노인(60%)이 여자노인(40%)보다 약간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chi^2(1) = 3.186, .05 < p < .10$. 시설노인은 무학이 50%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중졸 이하의 학력이었으나, 일반노인은 중졸 이하, 고졸, 대졸이 각각 52%, 27%, 21%를 차지하였다, $\chi^2(3) = 71.636, p < .001$.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학력이 일반 노인들의 학력보다 훨씬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시설노인과 일반노인의 연령, 성별 및 교육수준에 따른 분포 (단위: 명, 괄호 안은 백분율)

	연령			성별		교육수준				합계
	60대	70대	80대	남	여	무학	중졸	고졸	대졸	
시설노인	62(54)	37(32)	16(14)	69(60)	46(40)	64(56)	40(35)	8(7)	3(2)	115(100)
일반노인	69(56)	40(32)	15(12)	60(48)	64(52)	15(12)	50(40)	33(27)	26(21)	124(100)
계	131(57)	77(34)	21(9)	124(54)	105(46)	76(34)	87(39)	35(16)	25(11)	239(100)
연령평균	64.80	74.08	82.24	68.10	71.20	72.22	68.62	68.06	66.92	69.12
표준편차	2.75	3.03	2.41	6.01	6.74	7.37	5.72	5.51	5.57	6.25
범위	60-69	70-79	80-87	60-84	60-87	60-87	60-81	61-83	60-81	60-87

측정도구

1. 생활만족도 척도(SWLS)

앞서 지적한 대로,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이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느끼는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첫째는 Diener 등(1985)이 개발한 SWLS이다. 이 척도는 응답자가 자기 나름의 기준을 토대로 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인 판단을 하도록 한다(Pavot & Diener, 1993). 이 척도는 원래 7점 척도 문항 5개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연령이 높아 척도사용법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5점 척도로 바꾸어서 사용하였다.

SWLS는 개발된 이래 삶에 대한 만족감을 재는 도구로는 가장 많이 쓰이는 도구의 하나로서, 척도의 신뢰도나 타당도 같은 중요한 심리학적 특성에서도 매우 만족할 만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SWLS는 최근 들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삶의 만족도 연구에도 이용되고 있다(김영진, 김완석, 나은영, 이선이, 이종한, 조성을, 1998; 김혜숙, 김영진, 김완석, 이종한, 나은영, 이선이, 조성을, 1997). 이 척도를 사용한 연구들의 요인분석 결과에 의하면 5개의 문항이 하나의 요인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완석, 김영진, 1997; Arrindell, Meeuwesen, & Huyse, 1991; Diener et al., 198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자료를 처리할 때 5개 문항을 합산해서 평균한 값을 SWLS 점수로 삼았다. SWLS 점수는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의 범위를 가지며 중간점은 3점이다.

2. 노인생활만족도 척도(MUNSH)

SWLS는 연령에 관계없이 청소년기 이후로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연령에 걸쳐 삶에 대한 만족감을 측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들의 연령이 대체로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별히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측정하는 도구를 추가로 사용하였다. 노인을 대상으로 삶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검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Kozma와 Stones(1980)의 MUNSH를 토대로 윤진(1995)이 제작한 노인생활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MUNSH를 바탕으로 하고 여기에 Life Satisfaction Index(Neugarten, Havighurst & Tobin, 1961)와 필라델피아 노인만족도 척도(Philadelphia Geriatric Center Morale Scale)(Lawton, 1972)의 문항들을 보완하여 작성한 것으로,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 긍정적 경험과 부정적 경험을 측정하는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3점 척도로서(그렇다 2점, 잘 모름 1점, 그렇지 않다 0점) 긍정적 감정과 긍정적 경험 문항에 대한 점수에서 부정적 감정과 부정적 경험 문항에 대한 점수를 뺀 값을 총점으로 한다. 점수범위는 최저 -20점부터 최고 +20점까지이다.

3. 기분평정척도

삶의 대한 만족감의 중요한 요소로 많은 연구들이 정서경험의 강도나 빈도를 들고 있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여러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연구되고 사용되어온 척도의 하나인 이홍철(1993)의 기분평정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행복, 우울, 분노를 측정하는 15개의 형용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도 각기 .82를 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 척도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요인분석한 연구(김완석, 김영진, 1997)에 의하면

고유근이 1이상인 3개의 요인 중에서 이흥철이 ‘행복감’으로 명명한 첫 번째 요인은 긍정적 감정으로서 전체변량의 29.6%를 설명하며, 두 번째와 세 번째 요인은 이흥철이 각기 ‘우울’과 ‘분노’로 명명한 요인으로서 각기 20.6%와 9.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울요인에 속하는 요인들 중 3개는 분노요인에 .3 이상의 부하량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김완석과 김영진은 이 두 요인을 하나의 부정적 감정 요인으로 취급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본 연구에서도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의 두 요인을 사용하였다. 기분평정척도는 5점 척도로서 척도값은 평균값을 내므로 점수범위는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까지이다.

4. 외향성-내향성 척도

앞서 논의했던 대로, 많은 연구들이 삶에 대한 만족감이 개인의 성격특성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대체로 자아존중감, 개인적 통제감, 외향성, 낙관성의 네 가지 성격특성이 삶에 대한 만족감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손화희, 정옥분, 1999; Myers & Diener, 1985), 본 연구에서는 외향성-내향성 척도와 낙관주의-비관주의 척도의 두 가지를 사용하였다. 외향성-내향성 척도는 아이젠크와 이현수(1985)의 성격차원검사에서 외향성-내향성을 측정하는 20개 문항을 뽑아서 사용하였다. 문항의 총점이 외향성-내향성 점수이므로 점수의 범위는 최저 0점에서 최고 2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외향성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5. 낙관주의-비관주의 척도

낙관적인 사람들일수록 주관적인 안녕감을 높게 유지한다는 연구결과(Scheier & Carver,

1992, 1993)에 기초해, 낙관주의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를 포함시켰다. 낙관주의-비관주의 척도로는 Scheier와 Carver(1985)의 삶의 지향성 척도(Life Orientation Test)를 김완석과 김영진(199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삶의 지향성으로서 낙관주의와 비관주의를 하나의 차원으로 간주하고 측정하는 척도이다. 4개의 가짜문항(filler items)을 포함해서 동의 여부를 묻는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낙관 4문항과 비관 4문항의 평균값을 척도값으로 삼았으므로 점수범위는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까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낙관적임을 나타낸다.

6. 영역별 만족도

삶의 구체적 영역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5점 척도 문항 12개를 작성하였다. 이 문항들은 신체적 만족도(2문항), 물질적 만족도(3문항), 사회적 만족도(2문항), 정서적 만족도(3문항), 생산적 만족도(2문항)의 5개 영역으로 나누어 각기 하위척도를 구성하였다.

문항 선정은 선행연구를 참고로 해서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각 영역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문항을 선정하였다. 영역만족도를 측정하는 문항의 예로는 “나는 지금의 내 건강상태에 만족한다”(신체), “나는 매일 입을 옷/먹는 음식/생활하고 있는 집의 상태에 만족한다”(물질), “나는 배우자/자녀(또는 시설직원/자원봉사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사회), “나는 내 삶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정서), “나는 내가 매일 하고 있는 일(집안일, 직장일, 취미생활 등)에 만족한다”(생산) 등이 있다. 각 영역에 속하는 문항들을 평균한 값이 그 영역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되며, 점수의 범위는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까지이다.

표 2에는 연구에 사용한 척도들의 Cronbach α 신뢰도를 제시하였다. MUNSH는 신뢰도가 .63으로 좀 낮은 편이었으나 나머지 척도들은 신뢰도가 .67~.84 사이에 있어 대체로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영역별 만족도는 5개 영역 모두 문항 수가 두 세 개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뢰도 계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실시방법

질문지는 미리 훈련받은 면접조사원들이 복지 시설이나 복지관을 방문하여 해당기관 종사자들의 협조 하에 실시하였다. 질문지 실시는 기본적으로 면접조사원이 노인들에게 개별적으로 문항을 읽어주고 내용을 설명해준 다음 그들의 의견을 물어서 대신 기입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일부 일반노인들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조사원이 배석한 상태에서 질문지를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다. 시설거주 노인들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원이 연령, 교육수준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대한 정보를 노인이 말하는 대로 일단 기록한 다음, 사무실의 입

소 자료를 참고하여 나중에 따로 확인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거쳤다. 여러 문항에 대한 응답이 누락되어 있는 질문지(12부)와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질문지(15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결 과

1. 삶에 대한 만족도와 성격특성에서 시설노인과 일반노인의 차이

연구에 사용한 모든 척도에 대해 집단과 연령에 따른 평균점수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에는 집단과 연령을 변인으로 하는 이원변량분석의 결과도 제시되어 있다. 삶에 대한 만족도를 SWLS로 측정할 경우 집단과 연령 간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시설노인의 SWLS 점수는 연령에 따른 변화가 없었는데 반해, 일반노인의 경우 60대와 70대의 SWLS 점수는 차이가 없었으나 80대는 60대와 70대에 비해 SWLS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ukey 검증, $p < .05$). 그림 1에 이 상호작용을 제시하였다. 60대와 70대에는 시설노인과 일반노인 간에 SWLS 점수에 뚜렷한 차이가 없으나 80대에는 일반노인의 SWLS 점수가 시설노인에 비해 크게 떨어짐을 볼 수 있다. MUNSH의 경우에도 집단과 연령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유의미수준에 근접하였는데, SWLS와 비슷한 패턴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즉, 시설노인의 MUNSH 점수는 60대와 70대에 비해 80대에 오히려 약간 높아졌으나 일반노인의 점수는 80대에 들면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표 2. 연구에 사용한 척도들의 신뢰도

척도 및 하위척도명	문항수	점수범위	신뢰도	
SWLS	5	1~5	.75	
MUNSH	20	-20~+20	.63	
기본평정척도	긍정정서	5	1~5	.71
	부정정서	10	1~5	.80
외-내향성	20	0~20	.82	
낙관-비관주의	8	1~5	.67	
영역별 만족도	신체	2	1~5	.73
	물질	3	1~5	.76
	사회	2	1~5	.65
	정서	3	1~5	.67
	생산	2	1~5	.84

표 3. 집단과 연령에 따른 척도별 평균점수(표준편차)와 변량분석 결과

집단	연령	SWLS	MUNSH	긍정 정서	부정 정서	외향성	낙관 주의	신체	물질	사회	정서	생산
시설 노인	60대	3.23 (1.02)	5.97 (8.80)	3.32 (1.12)	2.13 (1.12)	10.47 (4.43)	3.42 (.72)	3.39 (1.65)	4.25 (.81)	4.13 (.97)	3.56 (.94)	3.85 (1.35)
	70대	3.48 (.97)	4.76 (10.79)	3.32 (.90)	2.22 (1.07)	9.14 (4.00)	3.23 (.77)	3.86 (1.23)	4.45 (.58)	4.31 (.72)	3.74 (.68)	4.16 (.96)
	80대	3.56 (.82)	9.56 (8.03)	3.66 (.97)	1.83 (.73)	10.44 (4.24)	3.45 (.69)	3.06 (1.48)	4.21 (.59)	4.47 (.62)	3.48 (.79)	4.25 (.77)
	전체	3.36 (.98)	6.08 (9.43)	3.37 (1.03)	2.12 (1.06)	10.03 (4.28)	3.36 (.73)	3.50 (1.52)	4.31 (.72)	4.23 (.85)	3.61 (.84)	4.01 (1.17)
일반 노인	60대	3.39 (.83)	6.74 (8.00)	3.37 (.92)	2.14 (.57)	12.33 (3.89)	3.53 (.62)	3.26 (1.35)	3.83 (1.03)	3.93 (.92)	3.79 (.88)	3.93 (1.03)
	70대	3.43 (.92)	5.50 (10.78)	3.16 (.96)	2.18 (.84)	11.20 (5.17)	3.67 (.58)	3.08 (1.38)	3.78 (.83)	4.03 (.84)	3.70 (.84)	3.95 (1.01)
	80대	2.36 (.77)	-1.40 (13.85)	2.72 (.94)	2.36 (1.03)	10.60 (6.07)	2.95 (.86)	3.40 (2.19)	2.87 (.87)	3.20 (1.44)	2.95 (.97)	2.60 (1.52)
	전체	3.36 (.88)	5.95 (9.39)	3.26 (.94)	2.16 (.69)	11.85 (4.47)	3.55 (.63)	3.20 (1.39)	3.77 (.97)	3.93 (.92)	3.72 (.88)	3.88 (1.07)
집단		3.12	2.95	3.34	.88	2.52	.01	.46	23.99***	11.40**	.46	7.51**
F	연령	1.96	.68	.37	.16	1.97	1.12	.32	3.02	1.15	2.27	2.13
	상호작용	3.75*	2.79	1.76	.68	.30	3.49*	1.68	2.27	2.49	1.73	4.15*

주. 이후의 모든 표에서 * $p < .05$, ** $p < .01$, *** $p < .001$ 수준의 유의도를 의미함.
df: 집단(1, 223), 연령(2, 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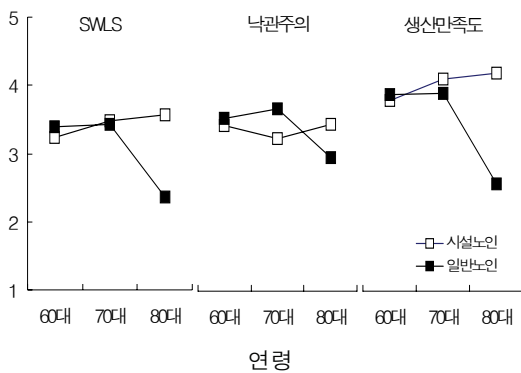


그림 1. SWLS, 낙관주의, 생산만족도 점수에서 집단과 연령의 상호작용

일상생활에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는 정도는 집단과 연령의 주효과, 그리고 상호작용 효과가 모두 의미가 없었다. 즉, 시설거주 노인과 일반노인 모두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격요인 중 외향성은 시설노인과 일반노인 간에 차이가 없었고 연령 간에도 차이가 없었으며, 집단과 연령 간 상호작용도 의미가 없으므로 나타났다. 그러나 낙관주의는 집단과 연령 간에 상호작용이 나타났다(그림 1). 사후분석 결과를 보면, 시설노인의 낙관주의 점수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일반노인의 경우에는 70대에서 80대 사이에 낙관주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떨어졌다(Tukey 검증, $p < .05$).

영역별 만족도의 경우 물질, 사회, 생산 영역의 만족도가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상식적인 예측과는 달리, 시설거주 노인이 일반노인보다 이 세 영역에서 더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영역의 만족도는 집단과 연령간의 상호작용 효과도 의미가 있었다(그림 1). 60대와 70대에는 시설노인과 일반노인간에 생산영역 만족도에 차이가 없었으나, 80대에는 일반노인의 생산영역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시설노인의 생산영역 만족도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일반노인의 생산영역 만족도는 60대와 70대에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80대에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다(Tukey 검증, $p < .05$). 사회영역 만족도의 경우에도 집단과 연령의 상호작용이 유의미수준에 근접하였는데, 생산영역의 만족도와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즉, 일반노인의 사회영역 만족도가 시설노인과 비교해서 80대에 유난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세 영역과는 달리, 신체영역과 정서영역의 만족도는 집단과 연령의 주효과가 의미가 없었고, 두 요인간의 상호작용도 의미가 없었다.

두 노인집단이 5개 영역만족도의 평균점수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집단을 피험자간 변인으로 하고 영역별 만족도를 피험자내 변인으로 하는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집단과 영역만족도의 주효과가 각각 유의미했으며, $F(1, 227) = 4.97, p < .05$ 와 $F(2.76, 626.83) = 33.37, p < .001$, 집단과 영역만족도의 상호작용도 유의

미하였다, $F(2.76, 626.83) = 5.14, p < .01$.* 그림 2에 이 상호작용을 제시하였다. 물질영역과 사회영역의 만족도 점수는 시설노인이 일반노인보다 더 높았다, 각각 $t(227) = 4.767, p < .001$ 과 $t(227) = 4.767, p < .05$. 그러나 나머지 세 영역의 만족도 점수는 시설노인과 일반노인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p > .10$.

집단과 성별에 따른 척도별 점수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측정하는 네 가지 척도(SWLS, MUNSH,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의 점수와 외향성 및 낙관주의 점수 모두에서 시설노인과 일반노인간에, 그리고 남녀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으며, 집단과 성별 간 상호작용 효과도 의미가 없었다, $F(1, 225) \leq 3.52, p > .10$. 영역별 만족도의 경우에는 신체영역 만족도에서 성별 주효과가 의미가 있었다, $F(1, 225) = 5.22, p < .05$. 즉, 시설노인과 일반노인 모두 남자노인이 여자노인보다 신체건강 면에서 더 만족하고 있었다(시설: 남3.68, 여 3.22; 일반: 남 3.42, 여 3.00). 물질영역과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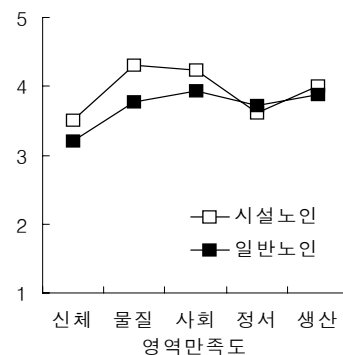


그림 2. 노인집단과 영역별 만족도의 상호작용

* 구형성 검사 결과 모든 변인들의 상관이 대략 동일하다는 피험자내 ANOVA의 전제가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Greenhouse-Geisser Epsilon에 의해 교정된 F값을 보고하였다.

회영역에서는 집단 주효과가 유의미했는데, $F(1, 225) = 20.61, p < .001$ 과 $F(1, 225) = 7.42, p < .01$. 이 두 영역에서 시설노인들이 일반노인들보다 더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물질영역: 시설 4.31, 일반 3.77; 사회영역: 시설 4.23, 일반 3.93).

집단과 교육수준에 따른 척도별 점수에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어떤 측정치에서도 교육수준의 주효과나 집단과 교육수준의 상호작용효과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3, 215) \leq 2.49, p > .05$. 그러나 집단 주효과는 부정적 정서, 그리고 물질영역과 생산영역의 만족도에서 유의미하였다, $F(1, 215) \geq 3.89, p < .05$.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2.17)들이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2.10)보다 일상생활에서 부정적 감정을 더 많이 느끼고 있었다. 또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일반 노인이 시설노인보다 물질만족도가 더 낮았고 (3.77 대 4.31), 생산만족도도 더 낮았다(3.93 대 4.23). 집단 주효과는 나머지 세 영역(신체, 사회, 정서)에서는 의미가 없었다, $F(3, 215) \leq 2.69, p > .05$.

2.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영역별 만족도, 성격변인의 관계

1) 상관관계 분석

표 4에 분석에 사용한 척도들의 상관관계수 행렬을 제시하였다.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시설노인과 일반노인 간에 큰 차이는 없었다. 우선 시설노인과 일반노인 모두 SWLS와 MUNSH가 .60에 근접하는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 결과는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SWLS가 노인용 척도인 MUNSH와 마찬가지로 노인대상 연구에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

을 보여준다.

둘째,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가 SWLS와 MUNSH 모두와 의미있는 상관을 보임으로써 정서경험이 삶에 대한 만족도의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었다.

셋째, 외향성과 낙관주의라는 두 성격변인은 SWLS, MUNSH, 그리고 긍정적 정서와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고, 부정적 정서와는 상대적으로 작기는 하지만 의미있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한 가지 예외는 시설노인의 경우 부정적 정서와 외향성 간에 의미있는 상관이 없었다는 것이다. 즉 일반적으로 성격이 외향적이고 낙관적인 노인들일수록 자신의 삶에 더 크게 만족하고 있었으며 일상생활에서 긍정적 정서는 더 많이 느끼고 부정적 정서는 더 적게 느끼고 있었으나, 시설노인들은 일상생활에서 부정적 정서를 느끼는 정도가 외향적 성향과는 관계가 없었다.

넷째, 영역별 만족도는 다섯 가지 모두 SWLS 및 MUNSH와 의미 있는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노인의 경우에는 SWLS와 MUNSH가 특히 생산영역에 대한 만족과 .50 가량의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였으나, 일반노인의 경우에는 물질 및 정서영역에 대한 만족과 상대적으로 더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전반적 만족도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삶의 영역이 시설거주노인과 일반노인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감의 구성요소를 행복한 경험과 순간의 함으로 파악하는 상황 이론과 한 개인의 총체적인 성향 혹은 성격특성으로 보는 하향이론을 논의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외향적 특성과 낙관주의적 태도는 SWLS 및 MUNSH와 .35~.57 사이의 상관을 보였고,

표 4. 시설노인과 일반노인의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성격요인 및 영역별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SWLS	MUNSH	긍정 정서	부정 정서	외향성	낙관 주의	신체	물질	사회	정서	생산
<u>시설노인</u>											
SWLS	1.00										
MUNSH	.60**	1.00									
긍정 정서	.59**	.51**	1.00								
부정 정서	-.42**	-.55**	-.25**	1.00							
외향성	.35**	.37**	.41**	-.07	1.00						
낙관주의	.41**	.45**	.42**	-.24*	.46*	1.00					
신체	.34**	.49**	.27**	-.28**	.22*	.24*	1.00				
물질	.36**	.40**	.18	-.38**	.21*	.26**	.45**	1.00			
사회	.39**	.36**	.38**	-.43**	.21*	.18	.26**	.32**	1.00		
정서	.43**	.48**	.28**	-.36**	.21*	.33**	.44**	.55**	.45**	1.00	
생산	.49**	.54**	.39**	-.51**	.25**	.29**	.41**	.44**	.52**	.53**	1.00
<u>일반노인</u>											
SWLS	1.00										
MUNSH	.58**	1.00									
긍정 정서	.40**	.57**	1.00								
부정 정서	-.29**	-.48**	-.30**	1.00							
외향성	.37**	.57**	.55**	-.23*	1.00						
낙관주의	.45**	.55**	.49**	-.33**	.51**	1.00					
신체	.27**	.46**	.33**	-.40**	.43**	.30**	1.00				
물질	.53**	.49**	.47**	-.17	.43**	.54**	.33**	1.00			
사회	.49**	.45**	.45**	-.24**	.46**	.48**	.33**	.57**	1.00		
정서	.52**	.52**	.60**	-.26**	.51**	.54**	.43**	.75**	.59**	1.00	
생산	.45**	.46**	.47**	-.24**	.43**	.57**	.30**	.55**	.57**	.64**	1.00

영역만족도는 SWLS 및 MUNSH와 .27~.54 사이의 상관을 보였다. 즉 SWLS 및 MUNSH와 두 요소 간에 상관계수의 크기에 눈에 띄는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로는 상향요소와 하향요소 중 어느 한 가지 요소가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영역별 만족도와 성격변인이 삶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해 SWLS, MUNSH,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를 삶에 대한 만족도의 네 가지 종속지표로 간주하고 상향 구성요소인 영역별 만족도와 하향 요소인 외향성과 낙관주의를 원인변수로 보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에 이 결과를 제

시하였다. 별도의 분석에서 사회인구학적 변인인 연령, 성별, 교육수준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어떤 만족도 지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후 분석에서 이 변인들은 제외하였다.

표 5를 보면 영역별 만족도, 그리고 외향성과 낙관주의라는 성격변인을 통해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의 네 가지 지표를 의미있게 예측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삶에 대한 만족도의 구성요소가 생활경험의 누적과 개인의 성향을 통해 결정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 그러나 척도에 따라 유의미한 예측변수가 약간씩 달리 나타남으로써 네 가지 만족도 지표가 조금씩 다른 측면을 측정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 노인집단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예측변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노인의 경우

SWLS와 MUNSH는 생산영역만족도와 낙관주의가 유의미한 계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MUNSH는 이 두 변수 외에 신체건강에 대한 만족도도 유의미한 계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정서는 외향성과 낙관주의의 두 성격변수, 그리고 사회영역만족도가 유의미한 계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정서는 사회 및 생산 영역만족도가 유의미한 계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정적 정서는 성격요인 중 어느 것도 유의미한 계수를 갖지 못해 성격변인은 부정적 정서를 의미있게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일반노인의 경우 SWLS는 물질영역만족도가 유의미한 계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격변인은 둘 다 유의미한 계수를 갖지 못해 SWLS로 측정된 만족도를 의미있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MUNSH는 신체영역만

표 5. 삶에 대한 만족도의 네 가지 지표에 따른 다중회귀분석 결과

기준변인	예언변인							R ²	F
	신체	물질	사회	정서	생산	외향	낙관		
시설노인									
SWLS	.07	.06	.13	.09	.24*	.13	.19*	.375	9.18***
MUNSH	.23**	.03	.04	.11	.26**	.12	.22*	.473	13.72***
긍정적 정서	.09	-.10	.22*	-.02	.16	.22*	.25**	.343	7.97***
부정적 정서	-.04	-.17	-.23*	.04	-.32**	.16	-.14	.340	7.87***
일반노인									
SWLS	.01	.21*	.18	.13	.05	.04	.14	.365	8.69***
MUNSH	.20*	.10	.04	.06	.05	.26**	.23*	.480	13.96***
긍정적 정서	.00	-.05	.04	.36**	.04	.28**	.13	.451	12.45***
부정적 정서	-.34**	.15	-.07	-.06	-.02	.06	-.26*	.216	4.17***

* $p < .05$ ** $p < .01$ *** $p < .001$

* 전반적 만족도의 네 가지 지표와 영역만족도의 네 가지 지표 간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표 4에 제시되어 있듯이, 지표들 간의 상관관계의 절대값은 모두 .51 이하였다. 또 공차한계는 모두 .365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요인은 2.737 이하였다.

족도, 그리고 두 가지 성격변인이 다 유의미한 계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정서는 외향성과 정서적영역만족도가, 부정적 정서는 낙관주의와 신체영역만족도가 각각 유의미한 계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영역별 만족도가 전반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삶의 특정 영역에 대한 만족을 삶 전반에 대한 만족과 비교함으로써 어떤 영역이 삶 전반에 대한 만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정 영역에 대한 만족과 전반적 만족이 둘 다 자신의 삶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므로 방법론적인 유사성에 의한 변산이 개입할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이순목, 1995), 각 영역에 대한 만족이 전반적인 만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김완석, 김영진, 1997). 표 6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전반적 만족도의 4개 지표(SWLS, MUNSH,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를 기준변인으로 하고 영역별 만족도를 예언변인으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6을 보면 영역별 만족도가 삶에 대한 만족도의 네 가지 측정치인 SWLS, MUNSH,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력이 시설노인과 일반노인의 경우에 각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설노인의 경우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가 생산영역의 만족도를 주로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영역과 정서영역, 그리고 신체영역의 만족도는 이들 측정치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물질영역의 만족도는 이들 지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반노인의 경우에는 전반적 만족도의 측정치들

표 6. 전반적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역별 만족도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1단계	R^2	2단계	R^2	3단계	R^2
시설노인							
SWLS	생산	.24		정서	.28		
MUNSH	생산	.29		신체	.38	정서	.40
긍정정서	생산	.15		사회	.19		
부정정서	생산	.26		사회	.29		
일반노인							
SWLS	물질	.28		사회	.33		
MUNSH	정서	.28		신체	.34	생산	.36
긍정정서	정서	.35					
부정정서	신체	.16					

이 물질, 정서, 신체영역의 만족을 주로 반영하는 반면에, 생산영역에 대한 만족은 거의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들과 시설거주 노인들이 1) 자신의 삶에 대해 현재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2) 삶의 여러 영역들에 대한 만족감과 삶 전반에 대해 느끼는 만족감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이들이 앞으로 더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영역에서의 생활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규명해내며, 또 3) 성격요인 중 외향성과 낙관주의가 삶에 대한 만족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는 것이었다.

시설노인과 일반노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

본 연구의 결과는 시설노인과 일반노인이 삶 전반에 대한 만족도와 영역별 만족도 모두에서

서로 간에 차이가 없거나, 시설노인이 일반노인보다 만족도가 오히려 조금 더 높은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두 노인집단의 객관적 삶의 조건에 근거한 상식적인 예측과는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나 시설노인과 일반노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해본 성기월(1999)은 시설노인이 일반노인보다 자신의 삶에 더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한 바 있다.

시설노인이 일반노인에 비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결과는 객관적 삶의 조건보다는 삶의 조건에 대한 주관적 해석이 만족감을 결정하는 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설노인들이 삶의 여러 영역 중에서도 특히 물질영역에서 일반노인들보다 더 만족하고 있다고 하는 결과는 이런 생각에 더욱 무게를 실어준다. 시설거주 노인들은 나이 들고 가진 것 없고 어디에도 몸을 의탁할 데가 없어 시설을 마지막 안식처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부와 권력, 출세를 좇는 일반사회의 기준으로 볼 때 행복이나 삶의 만족 같은 단어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조건으로는 그들보다 훨씬 낫다고 할 수 있는 일반노인들과 비슷한 정도로 삶에 만족할 뿐 아니라 물질 면에서는 일반노인들보다 오히려 더욱 만족하고 있었다. 사실 객관적 삶의 조건은 그 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한 주관적 지각을 통해 삶에 대한 만족감과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는 많이 있다(Johnson & Krueger, 2006).

Brickman, Coates와 Janoff-Bulman (1978)은 억대의 복권당첨 같은 큰 행운이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전신마비 같은 엄청난 불운마저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당사자에게 행복이나 불행을 가져다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복권당첨 같이 대단히 긍정적인 사건을 겪고 나면 그에 비해 일상적인 일들은 별 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따라서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더 이상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반면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행운이 가져다준 즐거움에는 익숙해지고 습관화되어서 그것이 더 이상 좋은 줄을 모르게 되기 때문이다. 거꾸로, 교통사고로 인해 사지가 마비되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불운을 당한 사람에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될 수 있다. 즉, 이들은 일상의 사소한 일들에서 예전보다 더 큰 기쁨을 느끼게 되는 한편, 장기적으로 사고 자체의 효과에는 습관화되고 둔감해짐으로써 불행감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예전에 비해 요즘은 소득이나 생활수준이 많이 향상되고 실제 구매력도 많이 증가했지만 요즘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보다 자신의 삶에 더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Easterlin, 1973; Gallup, 1977). 시설거주 노인들과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일반노인들이 삶에 대한 만족도에서 차이가 없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행복의 기준은 상대적인 것이라는 주장(Campbell, Converse, & Rodgers, 1976)에 힘을 실어준다고 하겠다.

일반노인과 시설노인은 연령에 따른 만족도의 변화양상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시설노인은 60대와 70대의 만족도 수준을 80대에도 그대로 유지하였지만, 일반노인은 80대에 이르러 삶에 대한 만족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일반노인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한 권중돈과 조주연(2000), 그리고 정혜정, 김태현과 이동숙(2000)도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연령집단 간에 만족도 점수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즉, 60대와 70대에 비해 80대에 노인들의 만족도 점수가 떨어진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와 비슷하게, 김태현, 김동

배, 김미혜, 이영진과 김애순(1999)은 70세 이상 노인들이 70세 미만 노인들보다 삶에 대한 만족도가 더 낮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시설노인과 마찬가지로 객관적 생활조건이 좋지 못한 생활 보호대상 및 재가복지수혜대상 등을 포함한 독거노인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연구한 김기태와 박봉길(2000)은 연령에 따른 만족도 점수에 차이가 없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시설노인이 일반노인과는 달리, 노년기 후반에 이르러서도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시설노인과 일반노인이 연령에 따른 변화양상에서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현재로서는 분명하지 않다. 일반노인의 경우 노년 전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쇠퇴를 체감하게 되는데, 이러한 객관적 조건의 악화와 더불어 자신에 대한 무가치감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을 느끼게 되면서 만족감과 행복감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이미 인생의 바닥을 경험한 시설노인들의 경우에는 나이가 든다고 해서 더 나빠질 것도 없기 때문에 만족감이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일 수도 있다.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와 영역별 만족도의 관계

시설노인과 일반노인들이 삶에 대해 느끼는 만족감과 행복감에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이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할 때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삶의 영역까지도 동일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영역별 만족도를 측정함으로써, 사람들이 삶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삶의 여러 영역 중 어느 영역

에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낮은지를 알아내는 데 목적이 있었다. 영역별 만족도의 상대적 영향력을 보면 어느 영역의 생활을 개선해야 해당집단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시설노인들이 삶의 각 영역에 대해서 느끼는 만족도를 보면 비교적 만족도가 높은 영역이 물질영역과 사회영역이었고, 그 다음이 생산영역이었으며, 신체영역과 정서영역의 만족도는 가장 낮았다. 그러나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삶의 여러 영역 중에서도 생산영역의 만족도가 시설노인의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감을 주로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정서, 신체, 사회 영역의 만족도가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물질영역 만족도는 거의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제로 만족도가 높은 영역보다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영역이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감에 더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참여한 시설노인들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과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 정서 및 신체 영역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일반노인의 경우에는 신체영역 만족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었고 나머지 네 영역의 만족도는 상호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SWLS와 MUNSH에 의해 측정된 만족감에는 물질영역과 정서영역의 만족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긍정적 및 부정적 정서에는 정서영역과 신체영역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일반노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에는 물질, 정서, 신체 영역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큰 데 반해, 시설노인과는 달리 생산영

역의 만족도는 그 영향력이 미미하였다. 따라서 시설노인들과는 달리, 본 연구에 참여한 일반노인들이 삶에 대해 느끼는 전반적 만족감과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물질, 정서, 신체영역의 불만요인들을 파악하여 개인을 대상으로 또는 사회제도에 의해 이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어느 시설 또는 어떤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집단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영역별 만족도가 삶에 대한 노인들의 만족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특정 시설 또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시설별 또는 지역별로 영역별 만족도의 상대적 영향력을 밝히는 조사를 통해 전반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만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영역을 찾아내고 이 영역의 만족도를 집중적으로 높여줄 수 있도록 집단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모든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또는 모든 집단에 속하는 노인들에게 두루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이고 다목적적인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은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Lent, Singley, Sheu, Gainor, Brenner, Treistman과 Ades(2005)는 각 개인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영역의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영역의 만족도보다 전반적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노인집단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노인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개별화 프로그램 개발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삶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영역만족도는 영역에 따라 상대적 영향력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 삶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는 또 외향성과 낙관주의라는 두 가지 성격요인이 삶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일반노인과 시설노인의 결과에 큰 차이는 없었다. 노인집단에 관계없이, 낙관주의와 외향성이라는 두 가지 성격특성은 부정적 정서와는 부적 상관이 있었고 다른 모든 만족도 척도들과는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 즉, 성격이 낙관적인 노인일수록, 또 외향적인 성향이 강한 노인일수록 그렇지 못한 노인들에 비해 부정적 정서는 덜 느끼는 반면에,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감과 행복감은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집단에 따라, 그리고 만족도 지표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회귀분석 결과 역시 낙관적 성격과 외향적 성격이 삶에 대한 만족도에 일정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하향요인인 성격요인과 상향요인인 영역별 만족도가 둘 다 삶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는 삶에 대한 만족도가 삶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만족의 누적 뿐 아니라 개인의 성향에 의해서도 결정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부합한다. 또 상향이론과 하향이론을 통합하는 이론적 관점을 지향하는 최근의 연구 동향과도 일치한다.

성격특성이나 영역만족도와는 달리, 연령, 성별, 교육수준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시설노인과 일반노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에 전혀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마다 수치의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선행연구에서도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에 의한 만족도 설명량은 많아야 15%를 넘지 못해, 무시해도 좋을 만큼

작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Diener, 1984; Myers & Diener, 1995).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

본 연구에서는 영역별 만족도를 측정하면서 Felce와 Perry(1997)의 구분에 따라 삶의 영역을 신체, 물질, 사회, 정서, 생산 영역의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연구자마다 영역을 분류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분류 방식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두 영역이 하나로 합쳐지기도 하고 한 영역이 두세 가지로 나뉘이기도 하며, 성격이 조금 다른 영역이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기도 한다. 어떤 방식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 각 영역에 대한 만족도는 달리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더욱이 각 영역의 만족도 측정에 사용되는 세부문항들의 성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중요한 삶의 영역을 확인하고 그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작성하는 데 연구자들이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척도의 성격에 따라 연구의 결과가 달리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는 영역별 만족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기존의 연구를 보면 연구자마다 제각기 다른 만족도 척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연구들 간에 서로 다른 결과가 얻어졌을 때 결과의 차이를 설명하기가 어렵다. 앞으로 이 분야 연구자들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지금까지 만족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어온 다양한 척도들을 성격이 분명하게 규정된 몇 개의 척도로 수렴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하나의 만족도 척도를

사용한 데 반해 본 연구는 여러 개의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이 척도들 상호간에 비교적 높은 상관성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 중 SWLS는 MUNSH와 상당히 높은 상관(.60, 시설노인; .58, 일반노인)을 보였다. SWLS는 기존 연구에서 LSI-A(Life Satisfaction Index-A), 필라델피아 노인만족도 척도와도 각각 .81과 .65의 높은 상관을 보인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Pavot, Diener, Colvin & Sandvik, 1991). SWLS는 항목 수가 5개이므로 항목 수가 20개에 달하는 MUNSH에 비해 실사가 간편할 뿐 아니라 MUNSH처럼 특별히 노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청소년기 이후 어느 연령층에나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발달 연구에서 폭넓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수행된 주관적 만족감 또는 행복감에 관한 연구 중에는 제대로 된 실험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종단연구도 그리 많지 않다(Diener, 1984, 1994). 특히 우리나라 연구는 대부분이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상관분석이나 회귀 분석을 통해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나 상대적 영향력 등을 알아보고 있을 뿐이다. 앞으로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분리해내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이나 인과관계 등을 파악해내기 위해서는 종단연구 및 실험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Diener, Lucas, & Scollon, 2006).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처럼 상관연구를 통해 특정 영역의 만족도가 전반적 만족도에 특히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을 경우 이 영역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다음 어떤 조치가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 일정한 기간을 두고 반복적인 측정을 통해 검토하는 연구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권중돈, 조주연(2000).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0(3), 61-76.
- 김기태, 박봉길(2000).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사회지지망. 지역복지관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0(1), 153-168.
- 김영진, 김완석, 나은영, 이선이, 이종한, 조성을(1998). 공동생활과 주관적 안녕감 III. 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김완석, 김영진(1997). 주관적 안녕 척도: 공동생활 및 활동과의 연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3, 61-81.
- 김태현, 김동배, 김미혜, 이영진, 김애순(1999).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II). *한국노년학*, 19(1), 61-81.
- 김혜숙, 김영진, 김완석, 이종한, 나은영, 이선이, 조성을(1997). 공동생활과 주관적 안녕감 II. 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박은숙, 김순자, 김소인, 전영자, 이평숙, 김행자, 한금선(1998). 노인의 삶의 질 예측모형 구축-건강관리 모형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18(3), 37-61.
- 성기월(1999). 시설노인과 재가노인의 일상생활 정도와 생활만족 정도의 비교. *한국노년학*, 19(1), 105-117.
- 손화희, 정옥분(1999). 재가복지 수혜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 *한국노년학*, 19(1), 83-103.
- 아이젠크 & 이현수(1985). 성격차원검사 요강.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유희정(1987). 노인의 성격특성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외-내향성과 신경증적 경향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6, 1-8.
- 윤진(1995). 성공적 노화와 삶의 질. 삶의 질의 심리학. *한국심리학회 1995년도 춘계심포지엄 논문집*, 45-75.
- 이순목(1995). 직업생활의 질과 인생의 질. 삶의 질의 심리학. *한국심리학회 1995년도 춘계 심포지엄 논문집*, 79-112.
- 이흥철(1993). 정서상태가 기억수행 및 주의편향에 미치는 효과.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현, 이철우(1996). 노인 생활만족도에 관한 시간적 차원의 연구. *한국노년학*, 16(2), 137-150.
- 정태연(2001). 대학생 자녀와 그 부모가 평가한 세대간 차이점과 유사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7, 1-19.
- 정혜정, 김태현, 이동숙(2000). 독거 여성노인의 생활만족도 연구-전라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0, 49-70.
- 통계청(2001). 장애인구추계 2000-2050.
- Abeles, R. P., Gift, H. C., & Ory, M. G. (1994). *Aging and quality of life*. New York: Springer.
- Andrews, F. M. & Withey, S. B. (1974). *American's perception of life quality*. New York: Plenum Press.
- Andrews, F. M. & Withey, S. B. (1976). Developing measures of perceived life quality: Results from several national survey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 1-26.

- Arrindell, W. A., Meeuwesen, L., & Huyse, F. J. (1991).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LMS). Psychometric properties non-psychiatric medical outpatients samp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 117-123.
- Baltes, P. B. & Baltes, M. M. (1990). *Successful aging: Perspectives from the behavioral science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ltes, P. B. & Mayer, K. U. (1999). *The Berlin aging study: Aging from 70 to 100*.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adburn, N. M. (1969).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Chicago: Aldine.
- Brickman, P., Coates, D. & Janoff-Bulman, R. (1978). Lottery winners and accident victims: Is happiness rela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917-927.
- Brief, A. P., Butcher, A. H., George, J. M., & Link, K. E. (1993). Integrating bottom-up and top-down theories of subjective well-being: The case of health. *Journal of Personality of Social Psychology, 64*, 646-653.
- Campbell, A. (1981). *The sense of well-being in America: Recent patterns and trends*. New York: McGraw-Hill.
- Campbell, A., Converse, P. E., & Rodgers, W. L.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New York: Sage.
- Costa, P. T. & McCrae, R. R. (1980). Influence of extraversion and neuroticism on subjective well-being: Happy and unhappy peop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 668-678.
- Costa, P. T. & McCrae, R. R. (1984). Personality as a lifelong determinant of well-being. In C. Malatesta & C. Izard (Eds.), *Affective processes in adult development and aging* (pp.141-156). Beverly Hills, C. A.: Sage.
- Costa, P. T., McCrae, R. R., & Norris, A. H. (1981). Personal adjustment to aging: Longitudinal prediction from neuroticism and extraversion. *Journal of Gerontology, 36*, 78-85.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Diener, E. (1994). Assessing subjective well-being: Progress and opportunit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1*, 103-157.
- Diener, E. & Diener, M. (1995). Cross-cultural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nd self 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of Social Psychology, 68*, 653-663.
- Diener, E., & Emmons, R. A. (1984). The independence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1105-1117.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1.
- Diener E. & Larsen, R. J.(1984). Temporal stability and cross-situational consistency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Journal of*

-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871-883.
- Diener, E. & Lucas, R. E. (1999). Personality and subjective well-being. In D. Kahneman, E. Diener, & N. Schwarz (Eds.), *Well-being: The foundations of a hedonic psychology* (pp. 213-229).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Diener, E., Lucas, R. E., & Scollon, C. N. (2006). Beyond the hedonic treadmill: Revising the adaptation theory of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61(4), 305-314.
- Easterlin, R. A. (1973). Does money buy happiness? *The Public Interest*, 30, 3-10.
- Feist, G. J., Bodner, T. E., Jacobs, J. F., Miles, M., Tan, V. (1995). Integrating top-down and bottom-up structural models of subjective well-being: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138-150.
- Felce, D. & Perry, J. (1997). Quality of life: the scope of the term and its breadth of measurement. In Brown, R. I.(Ed.). *Quality of lif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Models, research and practice*. Stanley Thornes Ltd.
- Gallup, G. (1977). Human needs and satisfaction: A global survey. *Public Opinion Quarterly*, 40, 459-467.
- Garfein, A. J. & Herzog, A. R. (1995). Robust aging among the young-old, old-old, and oldest-old. *Journal of Gerontology*, 50B, 577-587.
- Headey, B. & Wearing, A. (1989). Personality, life events, and subjective well-being: Toward a dynamic equilibrium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731-739.
- Hotard, S. R., McFatter, R. M., McWhirter, R. M., & Stegall, M. E. (1989). Interactive effects of extraversion, neuroticism, and social relationships on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321-331.
- Johnson, W. & Krueger, R. F. (2006). How money buys happiness: Genetic and environmental processes linking finances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4), 680-691.
- Kolberg, K. J. S. (1999). Biological development and health risk. In T. L. Whitman, T. V. Merluzzi, & R. D. White (Eds.), *Life-span Perspectives on Health and Illness* (pp. 23-45). NJ: Erlbaum.
- Kozma, A. & Stones, M. J. (1980). The measurement of happiness: Development of the Memorial University of Newfoundland Scale of Happiness (MUNSH). *Journal of Gerontology*, 35, 906-912.
- Lawton, M. P. (1972). The dimensions of morale. In Kent, D. P., Kastenbaum, R., & Sherwood, S. (Eds.), *Research, planning, and action for the elderly* (pp.144-165). New York: Behavioral Publications.

- Lent, R. W., Singley, D., Sheu, H-B, Gainor, K. A., Brenner, B. R., Treistman, D., & Ades, L. (2005). Social cognitive predictors of domain and life satisfaction: Exploring the theoretical precursors of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 429-442.
- Leung, B. W., Moneta, G. B., & McBride-Chang, C. (2005). Think positively and feel positively: Optimism and life satisfaction in late lif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61*, 335-365.
- Lounsbury, J. W., Saudargas, R. A., Gibson, L. W., & Leong, F. T. (2005). An investigation of broad and narrow personality traits in relation to general and domain-specific satisfaction of college students.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46*, 707-729.
- Lucas, R. E., Diener, E., & Suh, E. (1996). Discriminant validity of well-being meas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 616-628.
- Maddi, D. R., Bartone, P. T., & Puccetti, M. C. (1987). Stressful events are indeed a factor in physical illness: Reply to Shroeder and Costa(1984),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81-90.
- Myers, D. & Diener, E. (1985).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 6*, 10-19.
- Neugarten, B. L., Havighurst, R. J., & Tobin, S. S. (1961).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16*, 134-143.
- Okun, M. A., Olding, R. W., Cohn, C. M. G. (1990). A meta-analysis of subjective well-being interventions among elders. *Psychological Bulletin, 108*, 257-266.
- Pavot W. & Diener E. (1993). Review of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Psychological Assessment, 5*, 164-172.
- Pavot W., Diener E., Colvin C. R., & Sandvik E. (1991). Further validation of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Evidence for the cross-method convergence of well-being measure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7*, 149-161.
- Rowe, J. W. & Kahn, R. L. (1987). Human aging: Usual and successful aging. *Science, 237*, 143-149.
- Scheier, M. F. & Carver, C. S. (1985). Optimism, coping, and health: Assessment and implications of generalized outcome expectancies. *Health Psychology, 4*, 219-247.
- Scheier, M. F. & Carver, C. S. (1992). Effects of optimism 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well-being: Theoretical overview and empirical updat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6*, 201-228.
- Scheier, M. F. & Carver, C. S. (1993). On the power of positive thinking: The benefits of being optimistic.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 26-30.
- Schroeder, D. H. & Costa, P. T. (1984). Influence of life event stress on physical

illness: Substantive effects or methodological flaw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853-863.

Stock, W. A., Okun, M. A., & Benin, M.(1986). The structure of subjective well-being among the elderly. *Psychology and Aging*, 1, 91-102.

Veenhoven, R. (1984). *Conditions of happiness*. Dordrecht: D. Reidel.

Wood, W., Rhodes, N., & Whelan, M.(1989). Sex differences in positive well-being: A consideration of emotional style and marital status. *Psychological Bulletin*, 106, 249-264.

1차 원고 접수: 2007. 4. 15
수정 원고 접수: 2007. 5. 9
최종게재결정: 2007. 5. 10

Quality of Life in the Elderly Living in the Community and in Institutions

Myung-Sook Chung

Department of Psychology & Welfare, Kkottongne Hyundo University of
Social Welfar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quality of life in the elderly residing in the community and those residing in institutions. It aimed at examining 1) the extent to which the two groups of old people were satisfied with their lives, 2) the domains of life which should be reorganized to elevate overall life satisfaction for the two groups of people, and 3) the effects of extraversion and optimistic personality on their satisfaction with life.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elderly residing in the community were not satisfied with their lives more than those in institutions. Secondly, satisfaction in the domain of production was found to be the most influential element comprising overall satisfaction with life for the elderly residing in institutions, whereas satisfaction in material, emotional and physical domains disproportionately affected overall life satisfaction for the elderly residing in the community. Finally, irrespective of the groups, the more optimistic and the more extroverted the old people were, the more satisfied they were with their lives. The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were discussed.

Key words: quality of life, life satisfaction, happiness, global satisfaction, domain satisfaction, elderly

